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6 주일

성 야고보 사도
(주님의 형제)

(제2조 • 조과 부활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사도 찬양송 ····· 84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사도경 : 갈라디아 1,11~19 ·····
봉독서 597
복음경 : 루가 8,27~39 ····· 12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한 선물

같은 신앙을 가진 정교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찬예배에 참례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상에 있는 투쟁의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인 승리의 교회가 일치하여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신성한 성체성혈과 한 몸으로 합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성찬예배에서 거행되는 성체성혈 성사에 가슴 설레면서 사제가 들고 있는 거룩한 선물이 모셔져 있는 성작으로 다가갑니다.

사제는 성체성혈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고, 당신의 신성한 사랑으로 나를 변하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이시여, 당신과 합일되는 것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당신의 신성하고 따뜻한 사랑으로부터 제 마음이 풀어졌으니 부디 저에게 오셔서 머무시기를 바라는 성스러운 열망에 불타오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선택의 그리스도인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한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 사람들에게 쓴 것, 즉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느님의 일꾼”(고린토 후 6,4)으로 살아야 함을 잊고 사는 신자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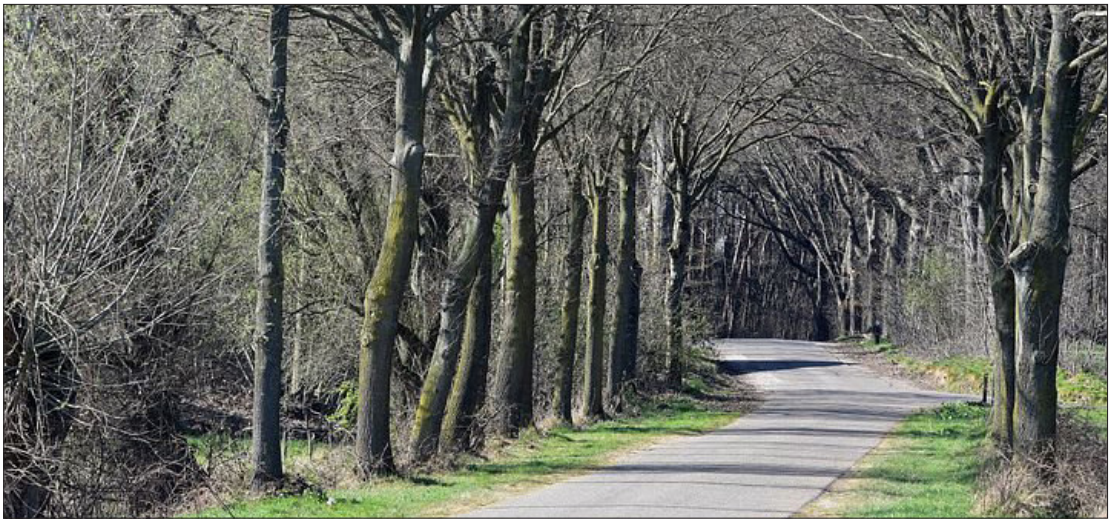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쉬운 것만을 선택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자르고 꿰맨' '쉬운' 복음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으로, 이른바 '선택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교적 요소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에 반대되는 요소가 많이 자리하게 됩니다.

무얼 하든 하느님 마음에 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목자들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있어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죄란, 남을 판단하고 거짓말하는 것인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순진한’ 작은 거짓말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또, 혼전 관계, 혼외 관계, 낙태 등 하느님의 말씀이 죄로 명시하며 정죄한 것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덕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는 것인지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죄에 대해서도 자신들 잣대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별하는 '선택의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게도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5,19)

죄와 악 : 영적인 세계의 현실



거짓말은 정신이 허위로 속이는 것이며, 악은 의지가 기만(欺瞞: 속여넘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표지는 하느님 자신의 심판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서,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것을 바라도록 이끄는 것이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악입니다.

- 성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우리의 세계는 두 가지 원칙과 근원에 의해 인도되는데, 곧 하느님과 악마입니다. 인간 세계 속에서 보다 더 좋은 것은 모두 하느님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모든 나쁜 것은 악마를 그 원칙과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선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모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옵니다.

- 성 저스틴 포포비치

음식은 악하지 않으며, 탐식이 악합니다. 출산과 분만은 악하지 않지만 간음은 악합니다. 돈은 악하지 않으나 탐욕은 악합니다. 영광은 악하지 않지만 허영심은 악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만 악하게 됩니다.

- 성 막시모스 고백자

하느님과 악마는 서로 반대되는 곳에 있게 됨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죄에 대해 등을 돌리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향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모든 길은 하느님께로 가 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될 때, 그의 모든 길은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누군가 최종적으로 말로나 또는 자신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부정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영혼과 몸 두 가지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봉사하는 것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

주간 예배 안내

* 10월 26일(수)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영화 관람 안내

천주교 가톨릭 영화제에서 국내 처음으로 정교회 영화가 상영됩니다. 제목은 '하느님의 사람(Man of God)'으로 에기나의 넥타리오스 성인의 생애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미국, 그리스, 러시아 등의 유명 배우가 출연하며, 한국어 자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만큼 관람을 추천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서울 성당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4시 45분
장소 : 대한극장 2관
(충무로역 1번 출구)

소 식

▦ 양구 성당 보수공사

성당과 사택 건물의 페인트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 11월 30일 성당 축일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베드로 서진용, 그레고리오스 박노양, 미하일 박인현, 토마스 하정훈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를 마치고

지난 주일(16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세계 음식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각국 신자들의 참여로 한국,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브라질,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고, 신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방문하여 성당을 둘러보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특별히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음식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해준 장년회, 음료 판매 외에도 텐트와 테이블 설치, 청소 등으로 행사 운영에 큰 도움을 준 신데즈모스 회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표지 사진 설명

고기잡이 기적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 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루가 5,4~6)

1986년 심한 가뭄으로 갈릴래아 호수(겐네사렛 호수라고도 한다. -마태오 14,34; 마르코 6,53; 루가 5,1; 참조)의 수위가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났을 때, 호수 북서쪽에서 오래된 배의 일부(사진)를 발견하였는데 방사능 원소 측정 결과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7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배로 밝혀졌다. 이 배는 삼나무 널빤지를 서로 결합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고 아래쪽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길이 8.2m, 폭 2.3m 높이 1.2m로 돛대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배는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증거는 없지만, 갈릴래아 호수의 배는 복음서에서 50여 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활에서 자주 등장하고, 더욱이 예수님 시대의 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을 받는다.

현재 이 배는 '예수님의 배' 또는 '갈릴래아 호수의 배'란 명칭으로 불리며 발견된 호숫가 마을인 기노사르 키부츠의 이갈 알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다.